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 기술주, 금융주 부진에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4일(수) 미 증시는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 경계감, PPI발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긴장감 확대 등으로 하락 마감. 업종별로는 금융주(정책 불확실성, 실적 부진), 기술주(중국 H200 칩 통관금지 지시 등) 중심으로 하락함에 따라 3대 지수는 하락 마감 (다우 -0.09%, S&P500 -0.53%, 나스닥 -1.00%)

이 날 미 증시는 장 초반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 경계감과 11월 생산자물가(PPI) 발표 속 인플레이션 우려 반영되며 하락 출발. 11월 헤드라인 PPI는 전년비(YoY) 3.0%(vs 컨센 2.7%), 전월비(MoM) 0.2%(vs 컨센 0.2%) 기록, 에너지가격 4.6%(MoM) 급등에 기인. 다만, 연준 통화정책 경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인식 속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이 재차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증시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제한되었음.

업종 측면에서는 이 날 기술주(중국 세관, H200 칩 통관금지 지시 등)와 금융주(신용카드 금리 상단 10% 제한, 주요 금융주 실적 부진 소식 등)가 약세 연출. 연초 이후 미 증시의 특징은 기술주에서 여타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실제로, 연초 이후 업종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에너지(+7.5%), 소재(+7.3%), 산업재(+5.9%) 등은 상승한 반면, 테크를 중심으로 한 IT(-1.2%)업종은 부진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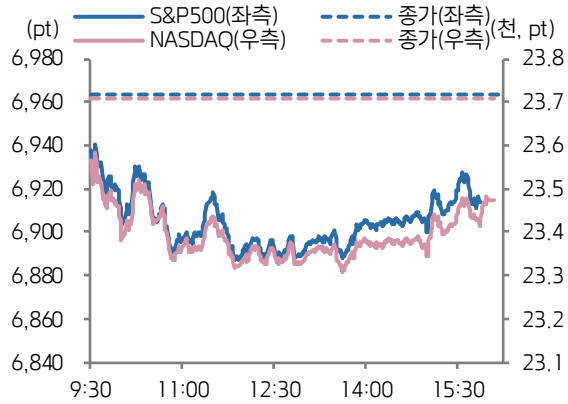
빅테크 주가 반등의 촉매는 결국 월 말 예정된 주요 기술주 실적 발표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AI 수익성 확보, 양호한 실적 가이드선 발표시 테크주 반등은 재차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만, 그 전까지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감 확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등 변동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빅테크 실적 발표 전까지는 미 증시 내에서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에서의 가치주, 중소형주로의 로테이션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1470원대 레벨 부담에 따른 외국인 매도 부담에도 기관 자금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 재경신. 반면, 코스닥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재료 소멸 인식 속 바이오주 내 차익실현 매물 출회된 결과 하락 마감 (코스피 +0.65%, 코스닥 -0.72%).

금일 국내 증시는 연초 이후 일부 업종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 점증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 반전(베센트 재무장관 구두개입), 풍부한 시장 유동성에 힘입어 저평가 실적주를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 펼쳐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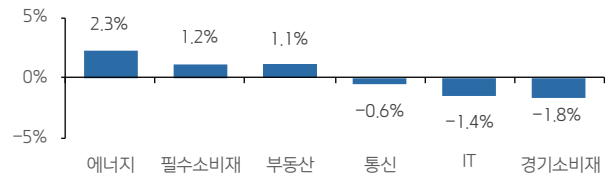
고객 예탁금 90조원선 근접, 연초 랠리 속 기관투자자 자금 집행 증가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이 당분간 국내 증시의 상승 경로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이 같은 유동성에 힘입어 실적시즌 다가옴에 따라 연초 급등주 중심에서 저평가 실적주로 순환매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편,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연초 반도체 중심으로 외인 수급 유입 이후 최근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 또한, 원달러 환율 1,450원선 상회 이후 환율 부담도 일부 외국인 순매도 흐름을 자극하는 상황으로 판단(최근 5거래일 외국인 -2.7조원 순매도). 다만, 전일 베센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속 원달러 환율 10원 넘게 급락한 가운데 최근 매도세를 이어왔던 외국인 수급 방향성이 금일 전환될지에 주목할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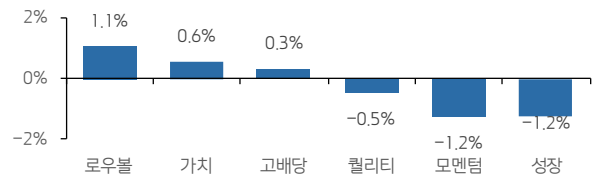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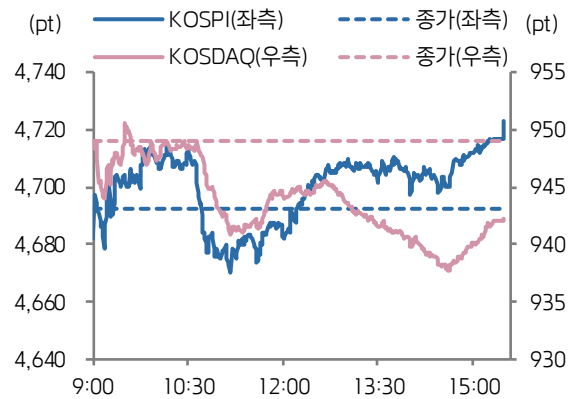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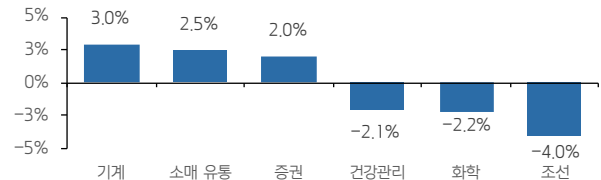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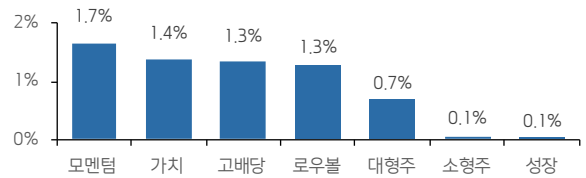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60.01	-0.4%	-4.36%	GM	81.23	-2.41%	-0.11%
마이크로소프트	459.53	-2.37%	-4.98%	일라이릴리	1,073.29	-0.36%	-0.13%
알파벳	335.89	-0.02%	+7.31%	월마트	120.04	-0.27%	+7.75%
메타	615.58	-2.46%	-6.74%	JP모건	307.87	-0.97%	-4.45%
아마존	236.71	-2.43%	+2.55%	엑손모빌	130.20	+2.89%	+8.19%
테슬라	439.15	-1.8%	-2.35%	세브론	167.24	+2.06%	+9.73%
엔비디아	183.14	-1.44%	-1.8%	제너럴일렉트릭	120.04	-0.3%	+7.7%
브로드컴	339.89	-4.15%	-1.79%	캐터필러	638.75	+0.35%	+11.5%
AMD	223.59	+1.19%	+4.4%	보잉	242.61	-0.79%	+11.74%
마이크론	333.39	-1.4%	+16.81%	넥스트에라	81.98	+0.4%	+2.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4,723.10	+0.65%	+12.08%	USD/KRW	1,464.00	-1%	+1.7%
코스피200	685.76	+0.74%	+13.17%	달러 지수	99.10	-0.04%	+0.79%
코스닥	942.18	-0.72%	+1.81%	EUR/USD	1.16	+0.01%	-0.88%
코스닥150	1,576.20	-1.1%	+1.87%	USD/CNH	6.97	-0.03%	-0.06%
S&P500	6,926.60	-0.53%	+1.18%	USD/JPY	158.56	-0.36%	+1.18%
NASDAQ	23,471.75	-1%	+0.99%	채권시장			
다우	49,149.63	-0.09%	+2.26%	가격	DTD(bp)	YTD(bp)	
VIX	16.79	+5.07%	+12.31%	국고채 3년	2.995	-0.4bp	+4.4bp
러셀2000	2,651.64	+0.7%	+6.84%	국고채 10년	3.420	+0.3bp	+3.5bp
필라. 반도체	7,701.48	-0.6%	+8.73%	미국 국채 2년	3.516	-1.7bp	+4.3bp
다우 운송	18,058.88	+0.02%	+4.04%	미국 국채 10년	4.140	-3.9bp	-2.7bp
상해종합	4,126.09	-0.31%	+3.96%	미국 국채 30년	4.790	-4.6bp	-5.4bp
항생 H	9,315.56	+0.32%	+4.51%	독일 국채 10년	2.814	-3.3bp	-4.1bp
인도 SENSEX	83,382.71	-0.29%	-2.16%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6,005.05	-0.41%	+3.69%	WTI	62.02	+1.42%	+8.01%
MSCI 전세계 지수	1,038.09	-0.02%	+2.31%	브렌트유	66.52	+1.6%	+9.32%
MSCI DM 지수	4,519.08	-0.07%	+2%	금	4,635.70	+0.8%	+6.79%
MSCI EM 지수	1,472.29	+0.42%	+4.84%	은	91.39	+5.85%	+29.44%
MSCI 한국 ETF	109.64	+1.95%	+12.78%	구리	605.55	+0.66%	+6.57%
디지털화폐				BDI	1,608.00	-3.07%	-14.33%
비트코인	97,506.59	+3.65%	+11.25%	옥수수	422.25	+0.6%	-4.09%
이더리움	3,371.32	+5.07%	+13.22%	밀	512.75	+0.44%	+1.13%
				대두	1,042.50	+0.36%	-0.48%
				커피	356.00	-1.18%	+2.0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1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